

품목별 제조/수입업체 회의 결과(2/4분기)

진흥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품목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각 품목별 시장상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. 다음은 2/4분기 품목별 제조/수입업체 회의결과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품 목 : 전기스토브, 전기그라인더, 전동공구, 무정전전원장치, 직류전원장치, 선풍기, 전기펌프, 전기 매트, 전기제빵기, 전기뜸질기, 모발말개, 전기맛사지기, 전기머리인두, 이·미용기기

◎ 제조업체회의 내용

- 전기스토브(2차)

현재 저질,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제조품까지 불량제품으로 오인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비교시험평가 품목(선풍기형히터)으로도 지정.

2000년 겨울 난방기기중 큰 매출을 보이며 국내 내수시장에서 활기를 띠는 제품임. 또한,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장광고 건으로 검토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있는 상태임.

- 전기그라인더

벤치 그라인더를 생산하는 현재 국내제조업체는 전기그라인더로 안전인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, 중국수입품의 경우 관계기관의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기계류로 분류, 안전인증 승인 없이 통관

이 되어 국내제조업체들이 산업피해를 보고 있음.

- 전동공구

LG, 계양전기와 같은 대기업은 다품목을 제조·생산하지만 그 외 중소기업의 경우 단일·단품목으로 전문적 생산을 함.

아시아권 전동공구는 일본, 대만, 한국 등이 3파전 중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난.

값싼 전동공구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간단한 조립을 하여 판매(Made in Korea로 표기하고 원산지 표시)하는 업체가 있음.

이럴 경우 국내제조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음.

- 무정전전원장치

국내시장 연간 규모는 금액적으로는 약 1,000억 원, 수량은 약 3만대 정도로 파악됨.

각 제조업체는 강제인증인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입찰에 유리하도록 ISO, 품질마크 등 임의인증을 취득하여 제조원가 상승함.

반면, 브랜드이미지가 높은 수입제품이 중국공장

품목별 제조/수입업체 회의 결과

으로부터 무관세로 국내에 유입하여 국내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함.

따라서 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체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공동대응.

- 직류전원장치(1, 2차)

전기용품안전기준상으로 기본/파생모델의 구분을 입력전압별·출력전압별로 하면 파생모델의 의미가 없음. 전자과장해공동연구소에서 직류전원장치의 인증접수시 입력전압별·코아 Size별로 구분하여 접수함.

- 선풍기

가정용 선풍기 국내내수 소비량은 연간 약 500만대 정도로 파악되고 공업용 선풍기의 경우는 약 2만대 정도로 추정됨.

시중에 유통이 되는 중국산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닌 판촉용으로 국내소비자에게는 외면, 반면 국산제품은 품질이 월등하여 판매가 잘 됨.

- 전기펌프

전기펌프의 국내시장의 점유율은 국산이 8, 수입산이 2정도로 파악, 국내업체중 한일전기의 경우 소량의 수요는 수입품으로 대체하고 수출에 전력을 함. 동남아 현지에서도 한일전기의 펌프는 브랜드이미지가 상당히 커 복제품이 상당수 발생, 복제품에 때문에 한일전기의 동남아 수출량이 해가 지날수록 적어짐.

- 전기매트

2000년도의 전기매트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월등히 많음.

전기매트의 중국수입품은 완제품이 아닌 부품으로 수입이 되어 국내제조업체들이 제조함. 국내부품 단가의 50% 정도로 낮으며, 소비자에 위험이 상당히 큼.

- 전기제빵기

가정용 제빵기의 경우 중국산으로 산업피해를 보고 있음. 국내 대기업이 OEM으로 중국에서 수입함으로써 A/S가 뒷받침되고 품질도 좋음.

국내제조품의 단가에 비해 70% 정도로 판매가 되어 판매가 잘됨.

업소용(비 안전인증대상품목)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만 일본, 유럽 등에서 수입함으로써 산업피해는 미미함.

- 전기뜯질기

국내시장의 연간 소비량은 약 35만대 정도, 실질적인 제조업체수는 약 20개 정도로 파악됨.

수입품은 미국, 독일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비싼 편이고 수요량은 미미함. 또한 중국수입품은 국내제품보다 품질이 낮고 가격 또한 높아 국내제품이 판매가 잘 됨.

- 모발말개

초창기의 모발말개는 일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제조를 함. 제품이 영구적이라서 수요는 많지가 않음.

업소용 모발말개의 경우 거의 일본제품이 많음
가정용 모발말개의 경우 프랑스의 바비리스 제품

품목별 제조/수입업체 회의 결과

이 국내시장을 잠식함.

- 전기머리인두

전기머리인두의 중견업체는 인지도로 국내수요자에게 신뢰를 얻어 국산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. 다만, 등급이 낮은 제품경쟁은 중국수입품과 국내 후발업체와의 경쟁이 생겨남.

- 전기면도기(2차)

반덤핑의 재차 청구는 국내시장을 관망하고 제조업체끼리 협의 후 준비.

- 전기맛사지기, 이미용기기

전기맛사지기 국내제조업체들이 안전인증과 식약청의 의료기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위축이 되고 있음. 또한 이미용기기중에서도 초음파 미용기기, 고주파 미용기기, 오존살균기 등이 이에 해당됨.

따라서 진흥원이 규제위원회에 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공문발송 준비중

◎ 불법·불량제품에 관한 사항

[전기펌프 제조업체회의(2001. 4. 27)]

- 동남아(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 등)에서 한일전기 펌프의 복제품이 상당히 많음

- 국내업체의 모델을 중국에서 복제하여, 부품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간단한 조립을 통한 제품 판매(상호까지 위조하여 A/S건이 발생함)

[전기매트 제조업체회의(2001. 5. 2)]

- 국내제조업체중 전기장판 발열선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하여 소비자보호에 위험이 큼

[전기뜸질기 제조업체회의(2001. 5. 8)]

- 부분품이 빠진 제품이 유통이 많이 되고 불법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난립

[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체회의(2001. 4. 11)]

-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단속을 강화

[이·미용기기 제조업체회의(2001. 6. 20)]

- 기타이용용전열기구의 품목중 전기세팅파마기의 불법제품(안전부품이 빠진제품)이 많음

◎ 제조업체 건의사항

[전기그라인더 제조업체회의(2001. 4. 4)]

-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의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중국수입품에 대한 기계류 분류(관세청)를 바로잡도록 관계기관과 언론에 홍보.

[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체회의(2001. 4. 11)]

- 값싼 수입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안전기준에 미달이 되는 제품이 많음 엄격한 시험검사가 필요

- 수입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

[전기펌프 제조업체회의(2001. 4. 27)]

품목별 제조/수입업체 회의 결과

-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품목별 세부검사 항목을 제시

[전기매트 제조업체회의 (2001. 5. 2)]

- 전기매트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기매트의 안전기준을 확립

[전기제빵기 제조업체회의 (2001. 5. 4)]

- 비 안전인증대상품목이라도 안전인증을 취득 요망
 - 비 안전인증대상품목이라도 임의인증으로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안전인증서 발부 가능함.

[전기뜯질기 제조업체회의 (2001. 5. 8)]

- 전기뜯질기 안전인증 시험검사 할 때 상승최고온도가 70°C에서 80°C로 조정 희망.
 - 참고로 전기장판의 상승최고온도가 80°C임.

[전기맛사지기 제조업체회의 (2001. 5. 23)]

- 안전인증기관과 식약청의 2중관리에서 1개 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제완화

[전기머리인두 제조업체회의 (2001. 6. 27)]

- 전기머리인두의 파생모델의 범위가 좁음. 재조정 필요
-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A/S 센터를 설립하자.

◎ 수입업체회의 내용

- 전기스토브
 - 중국산 전기스토브는 약 10년 전부터 출시, 그

당시는 판매가 잘 안됨. 2 ~ 3년전에 국내에서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급상승. 중국수입품에 대한 소비자고발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

- 전동공구

시장규모는 약 1,500억원(제조 : 50%, 수입 : 50%) 정도. 제조의 약 700억원 정도는 LG, 계양 전기가 양분하여 분포. 수입의 700억원 시장은 Bosch, Hilti, Black & Decker, AEG 정도로 제조·수입업체는 서로 불만이 없는 현황. 단, 나머지 100억원 시장은 국내의 중소기업으로 단일·단품목의 전동공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임.

- 전기그라인더

저가의 중국산 전기그라인더로 인하여 시장가격을 파괴함. 또한 관세청에서 전기그라인더를 기계류로 분류하여 무분별하게 수입. 국내제조업체는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함으로 값싼 중국수입품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함.

- 무정전전원장치

무정전전원장치의 적은 용량은 국산제품이, 대용량은 수입품이 대부분임. 수입품의 주류는 APC 제품으로서 국내대리점도 많음.

- 직류전원장치

실질적으로 직류전원장치 수입업체는 약 30~40개 업체로 파악됨. 전기·전자제품 수입시 부품처럼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, 직류전원장치만 따로 수입하는 업체

품목별 제조/수입업체 회의 결과

는 미미함.

- 전기머리인두

전기머리인두의 수입업체 수는 약 10개 업체로 파악됨.

전기머리인두의 국내수요량은 업소용으로 20만대, 가정용으로 5만대 정도.

가정용 머리인두의 주로 수입국가는 미국, 프랑스이고 업소용의 경우는 일본임. 중국산은 현재로서는 미미함.

- 전기맛사지기

전기맛사지기 국내제조업체들이 안전인증과 식약청의 의료기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위축이 되고 있음. 또한 이미용기기중에서도 초음파 미용기기, 고주파 미용기기, 오존살균기 등이 이에 해당됨. 따라서 진흥원이 규제위원회에 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공문발송 준비 중

- 모발말개

모발말개의 수입브랜드의 주종은 National, Panasonic으로 업소용 모발말개는 거의 일본산으로, 가정용 모발말개는 프랑스의 바비리스제품이 주종을 이룬다.

◎ 불법·불량제품에 관한 사항

[전동공구 수입업체회의(2001. 4. 10)]

- Bosch, Hilti, Black & Decker, AEG의 모조품(중국수입품 포함)이 시장에 분포

[무정전전원장치 수입업체회의(2001. 5. 15)]

- 제품에 안전인증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음

[모발말개 수입업체회의(2001. 6. 26)]

- 수입품(태국산)중 모발말개 부품(컨덴서)의 결함으로 경미한 감전을 일으키는 제품이 있음.

◎ 수입업체 건의사항

[전동공구 수입업체회의(2001. 4. 10)]

- 불량·불법제품에 대하여 단속 필요
- 전동공구 수입업체의 협의회를 구성
- 전기용품안전기준 CD-ROM의 데이터를 MS Word로 변경

[전기그라인더 수입업체회의(2001. 4. 17)]

- IEC기준과 부합한 안전기준으로 변경이 업체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음

[직류전원장치 수입업체회의(2001. 5. 22)]

- 안전인증을 해외본사에서 받은 제품이면 타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라도 관세통관을 되도록 인정

[전기맛사지기 제조업체회의(2001. 6. 19)]

- 안전인증기관과 식약청의 2중관리에서 1개 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제완화